

신약 그리스어 명령문의 한국어 번역을 위한 제안

장동수*

1. 들어가는 말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명령법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형태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령법(imperative)뿐만 아니라, 미래직설법,¹⁾ 부정사,²⁾ 분사,³⁾ 심지어 가정법(subjunctive)이나⁴⁾ 기원법(optative)⁵⁾ 까지도 명령법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 명령법들은 그 기능면에서 명령 혹은 권면(마 5:44; 살전 5:16-18), 금지(마 7:1; 요 6:20), 간구 혹은 청원(마 6:9-13; 요 17:11; 마 8:31), 허락(마 26:45), 양보 혹은 조건(요 2:19; 엡 4:26)⁶⁾ 등의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다양한 용법 때문에 성서 번역자들이 번역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그리스어 명령법에는 시간(tense)의 개념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동작의 양태(Actionsart)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현재 명령과 부정과거 명령이 있고,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등의 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심지어는 어형 상에서 직설법과 명령법이 동일한 동사들이 있어서 번역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⁷⁾ 또한 이 명령법은 이미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이 주절(main

*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 1) 미래직설법이 명령법으로 사용된 전형적인 예로 마 1:21(καλέσεις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Ἰησοῦν)과 22:37(Ἀγαπήσεις κύριον τὸν θεόν σου), 39(Ἀγαπήσεις τὸν πλησίον σου ὡς σεαυτόν.)가 있다.
- 2) 주로 인사에 쓰이나(χαίρειν- 행 15:23; 23:26; 약 1:1), 롬 12:15에서는 바로 앞 절인 14절의 정규 명령법 동사들과 나란히 부정사가 대등하게 명령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롬 12:14 εὐλογεῖτε τοὺς διώκοντας ὑμᾶς εὐλογεῖτε καὶ μὴ καταράσθε 15 χαίρειν μετὰ χαιρόντων, κλαίειν μετὰ κλαιόντων,
- 3) 로마서 12장에는 정규 명령법(2, 14, 20-21절), 부정사(15절), 분사(9-13; 16-19절)들이 함께 뒤섞여 명령으로 사용되고 있다. 분사가 명령법으로 사용된 예는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에서 많이 발견된다. 롬 12:9-13, 16-19; 벵전 3:7-9; 4:8-10.
- 4) 가정법이 명령법으로 사용된 전형적인 예는 막 5:23(ἵνα ἐλθὼν ἐπιθῆς τὰς χεῖρας αὐτῆ ἵνα σωθῆ καὶ ζῆσθ)이나 엡 5:33(ἡ δὲ γυνὴ ἵνα φοβῆται τὸν ἄνδρα)이다. 그리고 1인칭 복수 가정법은 소위 권유법으로 불리는 특이한 명령법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요 19:24(μὴ σχίσωμεν αὐτόν, ἀλλὰ λάχωμεν)이나 본고의 후반부에서 논의할 히브리서의 예들이 그러하다.
- 5) 신약에서 기원법이 명령으로 사용된 유일한 예는 막 11:14(Μηκέτ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ἐκ σοῦ μηδεὶς καρπὸν φάγοι.)인데, 이의 평행구절인 마 21:19에서는 가정법(Μηκέτι ἐκ σοῦ καρπὸς γένητα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으로 바뀌었다.
- 6) 요 2:19(Ἀύσατε τὸν ναὸν τοῦτον καὶ ἐν τρισὶν ἡμέραις ἐγερῶ αὐτόν.)은 조건이고, 엡 4:26(ὀργίζετε καὶ μὴ ἁμαρτάνετε.)은 양보로 볼 수 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첫 번째 명령이 양보이고, 두 번째 명령은 금지에 속한다.

clause)에서뿐만 아니라, 종속절(subordinate clause; 벧전 1:6; 3:3; 히 13:7), 연결사 생략(asyndeton),⁸⁾ 간접화법(행 21:21) 등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경우들 때문에 명령법 번역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한글 신약성서에서 이러한 그리스어 명령법이 번역된 예들을 유형별로 몇 가지를 선별하여 명령법 번역 상황을 살펴보고, 번역자들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다양한 명령법들이 신약의 각 책에 사용되었으나, 편의상 본고에서는 복음서와 서신서로 크게 나누어 그 예들을 찾아보았다.

2. 복음서

복음서에는 유명한 명령문들이 많다. 예를 들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 - ἀγαπάτε τοὺς ἐχθροὺς ὑμῶν),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마 22:37, 39 - Ἀγαπήσεις κύριον τὸν θεόν σου· Ἀγαπήσεις τὸν πλησίον σου.) 등이다. 두 번째 예는 정규 명령법이 사용되지 않고 미래 직설법이 명령법으로 사용된 예이다. 본고에서는 복음서에 나오는 명령법의 예들을 다루되, 주기도, 지상명령,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간의 차이 등으로만 제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1. 주기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Lord's Prayer)의 그리스어 신약 본문에는 명령법이 여러 번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주기도의 기원과 배경, 문학적인 구조, 신학 등에 대한 장황한 논의는 생략하고,⁹⁾ 주기도에 나오는 명령법에 대한 논의로 바로 들어가기로 한다. 마태복음(마 6:9-13)과 누가복음(눅 11:2-4)에 실려 있는 주기도의 구조는 서언과 청원(마태복음에는 일곱 개, 누가복음에는 다섯 개

7) 주로 2인칭 복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요 5:39(ἐραυνάτε); 14:1(πιστεύετε); 벧전 1:6(ἀγαλλιᾶσθε); 2:5(οἰκοδομεῖσθε); 롬 13:6(τελείτε); 고전 6:4(καθίζετε); 약 1:19(ἴστ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들 중에서 벧전 1:6은 본고에서 나중에 논의할 것이다.

8) 두 개의 명령법 동사가 접속사 없이 동시에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와 보라”(δεῦτε ἴδετε - 마 28:6; 요 4:29; 계 19:17)와 같이 사용되는데, 앞의 것은 감탄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단순한 형태는 빌 3:2에서 발견된다: “Βλέπετε τοὺς κύνας, βλέπετε τοὺς κακοὺς ἐργάτας, βλέπετε τὴν κατατομήν.”

9) 이와 같은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방대한 참고문헌을 보기 위해서는 Hans Dieter Betz, *The Sermon on the Mount*, Hermen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370-386 참조.

의 청원이 있다)으로 이루어졌고, 이 청원들은 소위 “당신 청원”(the *thou* petitions)과 “우리 청원”(the *we* petitions)으로 다시 나뉘는데, 두 부분 모두에서 명령법이 사용되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명령법이 청원이나 간구의 용법으로 사용된 전형적인 예이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를 따르면, 전반부 세 번은 3인칭 단수 명령법(ἀγιασθήτω, ἐλθέτω, 그리고 γεινηθήτω)이고 후반부 세 번은 2인칭 단수 명령법(δός, ἄφες, 그리고 ῥύσαι)이고, 여섯 번째는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 μή와 함께 2인칭 단수 가정법(εἰσειέγκης)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번역상의 어려움이 많은 전반부 즉 “당신 청원”에 나오는 3인칭 단수 명령법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 “당신 청원”은 처음 세 개(마태복음) 혹은 두 개(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셋째가 빠져 있다)의 청원인데, 마태복음의 본문과 『개역개정』은 다음과 같다:

마 6:9 Οὕτως οὖν προσεύχεσθε ὑμεῖς·

Πάτερ ἡμῶν ὁ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ἀ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10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

γεινηθήτω τὸ θέλημά σου, ὡς ἐν οὐρανῷ καὶ ἐπὶ γῆς·

마 6: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9절(ἀγιασθήτω)과 10절(γεινηθήτω)에 나오는 두 명령법의 형태는 모두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법이며, 10절의 ἐλθέτω는 이태(deponent) 형태이다. 주기도 중에서 이 세 명령법에 대한 번역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먼저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수동태가 포함되었다는 점(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하는 문체와, 또한 문법적인 주어를 사용할 것인가, 행위의 주체를 주어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체)이고, 둘째로는 청원이자 기도문인데 명령법이 사용되었다는 점(명령으로 볼 것인가? 기도로 볼 것인가?)이며, 셋째로는 인칭대명사의 속격 σου에 대한 번역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주기도의 번역에 관한 논의는 때로는 뜨겁다.¹⁰⁾ 그러나 사실상 언어의 성격상 원문의 의미를 내용과 형

10) 이런 논쟁에 대한 전형적인 예로 『표준새번역』의 주기도의 마 6:9의 번역에 관한 고영민-민영진 박사의 논쟁을 들 수 있다: 고영민, “『표준새번역』은 기독교 진리들을 현대인의 기호에 맞춰

식 모두 온전히 담아내는 번역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청원들의 번역에서는 수동태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영되어야 하며, 명령법은 기도문으로 번역될 수 있고, 부정과거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행동의 시작을 나타내는 시점을 나타내는 동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¹¹⁾ 인칭대명사 σου는 우리말로 하면 “당신의”가 된다, 하나님을 이 어휘로 표현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지만, “당신”이라는 말은 경어나 친근한 말로 사용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봄직하다.

첫 번째 청원인 ἁγιασθήτω는 ἁγιάζω(거룩하게 하다)는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법 3인칭 단수인데, 그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ἁγιασθήτω를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로 보아서 하나님을 숨겨진 주어로 여기고, 이 청원(ἁ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에 종말론적인 적용을 하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끝내고 그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¹²⁾ 둘째는 단순한 기도로 보아 숨겨진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로 여기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해주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다.¹³⁾ 전자의 경우는 하나님을 강조하여 번역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여 번역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청원의 대상이 이미 “하늘의 우리 아버지”(“Πάτερ ἡμῶν ὁ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로 명시되어 있고, 세 청원 모두의 문법적인 주어, “이름, 나라, 뜻”(“τὸ ὄνομα, ἡ βασιλεία, τὸ θέλημα”)에 2인칭 대명사 단수 속격(σου)이 첨부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청원에 숨어 있는 행위 주체를 하늘의 아버지, 즉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⁴⁾ 여기에서 ἁγιασθήτω뿐만 아니라 γεινηθήτω를 신적 수동태로 받아들인다면 “당신” 청원들의 행위 주체는 하나님임이 분명해진다. 신적 수동태를 살려 행위 주체를 암시하면서 번역할 경우에, 여기서는 문법상 주어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는 사역형 동사를 쓸 수도 있다.

『개역개정』의 경우 σου에 대한 번역이 생략되었으나 경어가 사용되었기 때문

의도적으로 왜곡시킬 것인가?” 『월간 목회』 201(1993. 5), 83-85; “『표준새번역』은 원문에 충실하기보다는 임의적으로 왜곡되고 수정된 현대판 주석서다,” 『월간 목회』 201 (1993. 7), 73-75; 민영진, “논증자료는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인용해야 한다,” 『월간 목회』 202 (1993. 6), 88-98; “『표준새번역』은 원문을 우리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 『월간 목회』, 204 (1993. 8), 87-101; 또한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서울: 기독교문사, 1994), 463-472 등을 보라.

11)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174;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B (New York: Doubleday, 1985), 904; 장동수, 『신약성서 헬라어 문법: 어형론과 문장론』(서울: 요단출판사, 1999), 208.

12) Betz, *The Sermon on the Mount*, 124.

13) Ibid.

14) Joachim Jeremias, *The Lord's Pray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14-15.

에 각 청원에 대한 행위 주체가 모호하다. 그러나 『표준새번역(개정판)』(“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에서는 σου의 번역이 “그”로 되었다. 그리고 문법적인 주어들을 목적어로 번역하면서 경어를 사용하여 행위 주체가 하나님임을 암시하였다.¹⁵⁾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주기도의 당신 청원에 대한 필자의 번역 제안은 다음과 같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때 주기도의 당신 청원에 나타나 있는 문법적인 측면도 잘 반영되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가 강조될 수도 있고 사람의 책임성도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학적인 측면도 손상되지 않게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기도 혹은 호소문에 명령법이 사용된 다른 예들은 요한복음 17:11(Πάτερ ἅγιε, τήρησον αὐτοὺς ἐν τῷ ὀνόματί σου)과 마태복음 8:25(Κύριε, σῶσον, ἀπολλύμεθα.)과 8:31(Εἰ ἐκβάλλεις ἡμᾶς, ἀπόστειλον ἡμᾶς εἰς τὴν ἀγέλην τῶν χοίρων.) 등이 있다.

2.2. 지상명령

마태복음 28:16-20은 소위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으로 불리는데, 이 문단은 자연스럽게 서술문(16-18상)과 선포문(18하-20)으로 나뉜다. 이 문단의 후반부인 선포문에 명령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규적인 명령법은 하나이고, 세 번에 걸쳐서 분사가 사용되었다. 실제적인 위임문인 18하-20절의 구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C(중심)+B'+A'의 교차대조 구조를 형성한다.¹⁶⁾ A(18하)와 A'(20하)는 모두 실명사들이 많이 사용된 선포문이고, 후반부에는 공히 전치사구가 동원되었으며, 두 문장 모두 1인칭 대명사(μοι 혹은 ἐγώ)와 형용사 ‘모든’(πάσα 혹은 πάσας)이 사용되어 예수의 권세가 강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B

15) 『표준새번역』의 <주기도>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박창해, “<주기도문>의 통어 구조,” 『성서한국』, 38:1(1992. 6), 10-24; 김창락, “<주기도문>의 번역과 주석상의 문제점,” 『성서한국』, 38:1(1992. 6), 25-31 등을 보라.

16) Hans Schieber, “The Conclusion of Matthew’s Gospel,” *Theology Digest* 27 (1979), 156-157.

와 B'는 모두 뒤에 동사가 따라오는 분사로 시작되고, '모든'(πάντα)이라는 형용사가 같이 사용되었고, 동사가 많이 사용된 선교 명령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교차대조 구조의 중심에 서 있는 19절 하반기절은 A 및 A'와의 관계에서 실명사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외적인 유사성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내적인 강한 연관성이 있다.

다음에 이 선포문에 대한 그리스어 원문과 필자의 사역을 교차대조 구조로 나열해 보았고, 이어서 대표적인 영어 번역본들과 한글 번역본들의 번역을 나열하였다:

A 18하 Ἐδόθη μοι πάσα ἐξουσία ἐν οὐρανῶ καὶ ἐπὶ τῆς γῆς.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B 19상 πορευθέντες οὖν μαθητεύσατε πάντα τὰ ἔθνη,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C 19하 βαπτίζοντες αὐτοὺς 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τοῦ υἱοῦ καὶ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침)례를 주고,

B' 20상 διδάσκοντες αὐτοὺς τηρεῖν πάντα ὅσα ἐνετειλάμην ὑμῖν·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A' 20하 καὶ ἰδοὺ ἐγὼ μεθ' ὑμῶν εἰμι πάσας τὰς ἡμέρας ἕως τῆς συντελείας τοῦ αἰῶνος.

보아라! 내가 세상의 완성 때까지 모든 날에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NIV Mat 28:19-20

19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NKJ Mat 28:19-20

19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Amen.

NRS Mat 28:19-20

19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remember,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개역개정』 마 28:19-20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새번역』 마 28:19-20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공동개정』 마태 28:19-20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18절은 지상명령의 조건이며 19-20절은 그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이 19-20절에서 문법적으로 순수한 명령형 동사는 μαθητεύσατε뿐이고, 나머지 세 동사는 모두 분사형으로 이루어졌다: πορευθέντες, βαπτίζοντες, 그리고 διδάσκοντες. 마태복음 28:16-20에 나타나는 지상명령의 세계적인 목적은 누가복음 24:47과 사도행전 1:8과 동일한 점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하는 이 세 분사들이 나열됨으로써 아주 독특하며 인상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분사들도 명령형 동사(μαθητεύσατε)를 인하여 명령의 기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제자를 삼아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활동 혹은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 물론 분사형들도 명령형 동사와 연계하여 사용될 때는 명령법의 힘을 얻게 되어 명령형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성서에서도 여러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¹⁷⁾ 특히 첫 번째 분사 πορευθέντες(‘가서’)는 명령법 동사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람어에 많이 나타나는 썸어적 병렬법(parataxis)으로 보아 베자사본(D)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πορεύεσθε νῦν μαθητεύσατε)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명령법으로 보았다.¹⁸⁾ 그리고 선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분사에

17)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944-946. 이렇게 분사형들이 명령문으로 사용된 신약성서의 두드러진 예들은 바울에게서는 롬 12:9 이하와 16절 이하에서 볼 수 있고, 베드로에게서는 뵤전 3:7, 9; 5:7 등에서 볼 수 있다.

18) Matthew Black, *An Aramaic Approach to the Gospels and Acts*, 3r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67), 64.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께서는 “사회적 경계, 인종적 경계, 문화적 경계, 그리고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가라고 명하셨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한다.¹⁹⁾ 이 지상명령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엡 6:15; 사 52:7; 롬 10:15).

실제적인 명령형 ‘제자를 삼아라’(μαθητεύσατε)는 동사의 원래의 뜻은 “제자가 되다”(to be a disciple, 마 27:27)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태(deponent) 동사(마 13:52; 27:57)로 변화했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다”(to make a disciple)(마 13:52; 27:57; 28:19; 행 14:21)라는 뜻으로 옮겨왔다. 단순히 가르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동사는 아니다.²⁰⁾ 이 동사형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세 번 사용되었고, 명사형 제자(μαθητής)라는 단어도 공관복음 중에서는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72번) 사용되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지식만이 아니라 스승의 삶과 인격을 배우고 참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의 도래를 향한 행진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²¹⁾ 그러므로 지상명령에서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복음 선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경험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인데 이 강조점을 세 번째 분사(διδάσκοντες)가 강화해 주고 있다.²²⁾

두 번째 분사(βαπτίζοντες)는 제자를 삼은 이들에게 세례 혹은 침례를 주라는 명령의 역할을 한다. 신약에서 세례와 연관된 삼위일체 형식은 이곳에만 나오고 사도행전과 바울서신(롬 6:3-4; 갈 3:27)에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ἐπὶ εἰς τῷ ὀνόματι Ἰησοῦ/Χριστοῦ)으로 세례가 이루어졌으나, 이 형식은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교회에서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²³⁾ 여기서 사용된 전치사 εἰς(‘안으로’)는 세례의 목적 혹은 결과나 효과, 즉 수세(침)자와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²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믿음과

19) Johannes Verkuyl, 김명혁 편역, 『선교의 성서적 기초』(서울: 성광문화사, 1983), 194.

20) Blass and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82.

21) Johannes Verkuyl, 김명혁 편역, 『선교의 성서적 기초』, 194-195; 마태복음의 제자도에 더 심각한 논의는 Michael J. Wilkins, *Discipleship in the Ancient World and Matthew's Gospel*, 2nd 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Michael H. Crosby, *House of Disciples: Church, Economics, and Justice in Matthew* (New York: Orbis Books, 1988); Richard A. Edwards, *Matthew's Narrative Portrait of Disciples: How the Text-Connoted Reader Is Informed* (Harrisburg: Trinity Press, 1997); P. Nepper-Christensen, “μαθητής, μαθητεύω,”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2,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ds. (Grand Rapids: Eerdmans, 1990); Ulrich Luz, “The Disciples in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ham Stanton, ed., *The Interpretation of Matthew*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98-128 등을 보라.

22) Donald A. Hagner, *Matthew 14-28*, WBC (Dallas: Word Books, 1995), 887.

23) Beasley-Murray, George R., *Baptism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6), 82-88.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새 시대의 보증인 성령에 대한 경험을 한데 묶어주는 것이며,²⁵⁾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단어 ‘이름’(τὸ ὄνομα)은 권세/통치, 보호, 소유 등을 의미하며,²⁶⁾ 단수로 사용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τοῦ υἱοῦ καὶ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이 하나임을 표현하는 연합을 암시하고 있다.

세 번째 분사(διδάσκοντες)로 표현된 ‘가르치라’는 위임은 커다란 변화이다. 지금까지 예수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명령과 위임은 주었지만 가르치라는 명령이나 위임은 없었고, 이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의 대표적인 사역이었으며 동시에 그에게만 한정되었었기 때문이다(마 4:23; 5:2; 7:29; 9:35; 11:1; 13:34; 21:23; 26:55).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 가르치라는 위임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점이 있다.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구절의 부정사 ‘지킨다’(τηρεῖν)는 마태가 좋아하는 동사로서(19:17; 23:3) 그 문법적인 기능은 목적이나 결과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내가 명한 모든 것’(πάντα ὅσα ἐνετειλάμην)이라는 어구는 마태복음에 진술된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뜻하는데, 여기서 마태는 다시금 ‘모든’(πάντα)이라는 형용사를 뒀으로써 율법 폐기론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강한 일격을 가하고 있다.²⁷⁾ 세례는 제자들의 공동체 입교나 신앙의 출발을 의미한다면, 교육은 그 안에서 신앙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령으로 볼 수 있는 어구인 20절 후반부에 사용된 어구 ‘보라’(καὶ ἰδοὺ)는 마태복음에서 자주 즐겨 사용된 어구(1:23에서부터 28:2, 7, 9, 20까지 60여 차례나 사용됨)로서 단순한 어투로 볼 수도 있지만, 주로 강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지상명령은 “제자를 삼아라”라는 정규 명령형에 세 종류의 분사형이 앞에 하나 뒤에 둘이 첨가되어 이루어진 명령문이다. 영어 번역본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점은 언어의 특성상 영어는 그리스어의 구문을 번역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글은 그렇지 못하다.

24) Maximilian Zerwick, *Biblical Greek* (Rome: Scripta Pontificii Instituti Biblici, 1963), 35; Nigel Turner, *Syntax* (Edinburgh: T. & T. Clark, 1963), 255.

25) Beasley-Murray, George R., *Baptism in the New Testament*, 83; W. Bieder, “βαπτίζω, βαπτίσιμα, βαπτισμός, βάπτω,”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194.

26) Lars Hartman, “Into the Name of Jesus: A Suggestion concerning the Earliest Meaning of the Phrase,” *New Testament Studies* 20 (1974), 432-440; Lars Hartman, “ὄνομα,”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2 (Grand Rapids: Eerdmans, 1990), 522.

27) Robert H. Gundry, *Matthew: A Commentary on His Handbook for a Mixed Church under Persecution*,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4), 597.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번역』에서는 쉼표를 쓰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점들을 포함하는 번역으로서 위의 표에 제시한 필자의 번역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2.3.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 두 가지 예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공관복음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여기서는 번역과 관련된 명령법에서의 차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 첫 번째는, 주기도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명령법에서의 시상 차이이다. 즉 주기도의 일부인 마태복음 6:11과 누가복음 11:3에서 각각 발견되는 부정과거 명령법(δός)과 현재 명령법(δίδου)이다.²⁸⁾ 이외에도 마태복음은 “오늘”(σήμερον)이라 하고 누가복음은 “날마다”(τὸ καθ’ ἡμέραν)라고 한 점도 명령법의 시상과 더불어 흥미로운 차이이다:

GNT Mat 6:11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ός ἡμῖν σήμερον·

NEB Mat 6:11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혹은 our bread for the morrow).

『개역개정』 마 6: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혹은 ‘내일 양식을’) 주 시옵고

『새번역』 마 6:11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혹은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고

『공동개정』 마 6:11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GNT Luk 11:3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ίδου ἡμῖν τὸ καθ’ ἡμέραν·

NEB Luk 11:3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혹은 our bread for the morrow).

『개역개정』 눅 11:3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새번역』 눅 11:3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혹은 ‘내일 양식’)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공동개정』 눅 11:3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누가는 마태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과거 명령법은 중 말론적인 강조점이 있지만, 현재 명령법은 지속적인 행동(“keep on giving”)을 나

28) 이와 동일한 현상은 다른 평행구절인 마 5:42와 눅 6:30에서도 발견된다.

타내주는 명령법이기 때문이다.²⁹⁾ 이러한 지속적인 행동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누가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오늘”(σήμερον)이라 하지 않고 “날마다”(τὸ καθ’ ἡμέραν)라고 했는데 이러한 점을 번역자들이 살려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리스어 현재 명령법과 부정과거 명령법이 가지고 있는 상이점과 특징을 한글이나 영어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이러한 측면은 성서 번역자들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시상의 문제는 비단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5:8과 로마서 6:13 등에서도 발견된다.

요 5:8 Ἔγειρε ἄρον τὸν κράβαττόν σου καὶ περιπάτει

롬 6:13 μηδὲ παριστάνετε τὰ μέλη ὑμῶν ὄπλα ἀδικίας τῇ ἀμαρτίᾳ, ἀλλὰ παραστήσατε ἑαυτοὺς τῷ θεῷ ὡσεὶ ἐκ νεκρῶν ζῶντας καὶ τὰ μέλη ὑμῶν ὄπλα δικαιοσύνης τῷ θεῷ

즉 요한복음 5:8의 두 번째 명령 “들어라”(ἄρον)는 부정과거 명령으로, 이제 행동을 시작하여 단번에 들으라는 의미이고, 세 번째 명령인 “걸어가라”(περιπάτει)는 계속하여 걸어 다니라는 의미가 된다. 한 문장에서 동일한 동사의 상이한 두 가지 시상의 명령법이 사용된 로마서 6:13의 첫 번째 명령, “παριστάνετε”(παρίστημι의 현재 명령)와 두 번째 명령, “παραστήσατε”(παρίστημι의 부정과거 명령)이다. 물론 이 시상의 차이를 스타일상의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습관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종말론적으로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결단을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³⁰⁾ 그러나 이것도 한글로 번역할 때 차이를 두기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서 명령법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차이점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허락으로 사용된 명령문 중에서 번역이 어려운 예인 마태복음 10:13이다: καὶ ἐὰν μὲν ἦ ἡ οἰκία ἀξία, ἐλθάτω ἡ εἰρήνη ὑμῶν ἐπ’ αὐτήν, ἐὰν δὲ μὴ ἦ ἀξία, ἡ εἰρήνη ὑμῶν πρὸς ὑμᾶς ἐπιστραφήτω. 이 구절에 대한 누가복음의 평행구절에서는 이 명령법 동사들이 다른 동사들의 직설법 미래형으로 바뀌었다: 누가복음 10:6-καὶ ἐὰν ἐκεῖ ἦ υἱὸς εἰρήνης, ἐπαναπαήσεται ἐπ’ αὐτὸν ἡ εἰρήνη ὑμῶν· εἰ δὲ μὴ γε, ἐφ’ ὑμᾶς ἀνακάμψει. 이로 미루어보면 마태복음의 명령법이

29)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B (New York: Doubleday, 1970), 904.

30) James D. G. Dunn, *Romans 1-8*, WBC (Dallas: Word Books, 1988), 337-338.

누가에게도 어렵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마태복음 10:13에서 『개역』과 『공동번역』은 직설법으로 번역하였으나, 『표준새번역』은 명령법을 살려 번역하였다: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NEB 같은 소수만을 예외로 하고 영어번역본 대부분은 명령법으로 이 구절을 번역한다. 예를 들면, “If the home is deserving, let your peace rest on it; if it is not, let your peace return to you.”(NIV)이다. 그렇다면 우리 번역자들은 어떤 입장에서 이 구절을 번역해야 할까? 당연히 원문에 나타난 대로, 명령법을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3. 서신서

신약성서의 서신서에도 유명한 명령문들이 많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16-18(16 Πάντοτε χαίρετε, 17 ἀδιαλείπτως προσεύχεσθε, 18 ἐν παντὶ εὐχαριστεῖτε·)이라든지, 빌립보서 3:2(Βλέπετε τοὺς κύνας, βλέπετε τοὺς κακοὺς ἐργάτας, βλέπετε τὴν κατατομήν.) 등이 그 중에 들 것이다. 여기에서는 바울서신 중에서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구절을 그리고 흔히 설교문으로 보는 히브리서의 몇 구절과 베드로서신의 한 구절에 대하여 살펴본다.

3.1. 로마서 5장과 12장

바울 서신은 흔히 양대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즉, 직설법(indicative)과 명령법(imperative)의 구조이다. 전형적인 예가 로마서인데, 로마서 1-11장은 직설법 구조이고 로마서 12-16장은 명령법 구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로마서 5장과 6장에서도 명령법은 사용되고 있다. 우선, 로마서 5장에서는 본문 결정이 명령법 번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로마서 5:1의 예를 살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울서신의 명령법 부분의 시작이면서 다양한 명령법으로 구성된 본문인 로마서 12장에서는 2절의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명령법을 살리는 번역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3.1.1. 로마서 5:1-직설법인가 권유법인가?

번역자들이 봉착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며 또한 사명은 원문이 무엇이었을

것인가를 찾아내는 일이다. 그 좋은 예 중의 하나가 로마서 5:1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본문상의 이문의 핵심은 단모음(o)이었을 것이냐 장모음(ω)이었을 것이냐의 판단 문제이나, 그 이면에는 해석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사본상의 외적인 증거는 장모음(ω)을 지닌 가정법(권유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립시다”: εἰρήνην ἔχωμε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 $\kappa^* A B^* C D K L 33 81$ it^{d^g} vg syr^{p, pal} cop^{bo} arm eth 등)이 단모음(o)을 지닌 직설법(“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εἰρήνην ἔχομε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 $\kappa^a B^3 G^{gr} P \Psi 0220^{vid} 88 326 330 629 1241 1739$ Byz Lect it^{61vid} syr^h cop^{sa} 등)보다 훨씬 우세하다. 하지만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이하 UBS) 4판의 편집자들은 내적인 증거를 따른다. 즉 바울은 이곳에서 화평이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리스어 모음 o과 ω의 발음상의 차이가 없어서 바울이 단음으로 발음했는데 대필가 더디오(롬 16:22)가 장음으로 대필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³¹⁾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이문단위에서 사본상의 외적 증거보다는 로마서의 내적 증거를 더 중요시하여 직설법으로 택한 UBS 4판의 편집자들과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제임스 던(James Dunn)도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권면을 하고 싶었다면 이사야 27:5처럼 동사 ποιήσωμεν (εἰρήνην αὐτῷ)이 더 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³²⁾ 존 머레이(John Murray)의 주석과 ICC 주석,³³⁾ 던(Dunn) 이후에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피츠마이어(Fitzmyer)나 더글라스 무(Douglas Moo)의 주석에도 동일한 논조가 흐르고 있다.³⁴⁾

이와는 상반되게 가정법이 원문이었을 것으로 주장하는 무시하지 못할 목소리가 있다. 스탠리 포터(Stanley Porter)는 로마서 5장의 논지를 위한 수사학에 대한 연구에서 이와는 상반된 견해를 진술하였다: 1) 교리 부분으로 여겨지는 로마서의 전반부에도 권유법들이 나오고 있다(즉, 6:1, 12, 15; 8:12); 2) 이전의 적대적인 문맥과 현재의 화해적인 문맥의 대비 관계에서 권유법이 더 잘 어울린다; 3) 로마서 3-4장에서 사용된 디아트리베 논쟁법(diatribе)에 의하여 이 시점에서 가정법으로 표현되는 권유법에 대한 적합한 환경이 형성되었고, 뒤이어 나오는 2절과 3절의 καυχώμεθα도 가정법을 사용한 권유법으로 볼 수 있다.³⁵⁾ 내적 증거

31) 브루스 M. 메츠거, 『신약그리스어본문주석』, 장동수 역, 제 2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438-439.

32) James D. G. Dunn, *Romans 1-8*, 245.

33) John Murray, *The Epistle to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65), 158-159; C. E. B. Cranfield, *The Epistle to the Romans*, ICC (Edinburgh: T. & T. Clark, 1982), 257.

34) Joseph A. Fitzmyer, *Romans*, AB (New York: Doubleday, 1970), 395; Douglas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295.

에서도 가정법이 원문이었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주장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본상의 외적 증거들이 가정법을 지지한다는 사실 때문에 높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역개정』에서는 로마서 5:1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유법으로 번역되어 가정법(ἔχωμεν)으로 보고 있다.³⁶⁾ 『개역』에서는 여백에 기록한 각주에서 로마서 5:2의 καυχώμεθα도 가정법으로 보아 “즐거워하자”라는 권유법으로 번역하고 있다.³⁷⁾ 즉, 『개역개정』의 번역위원회는 이 이문 단위에서 UBS 4판의 편집자들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새번역』,³⁸⁾ 『표준 신약전서』, 『공동개정』 등에서는 직설법이 채택되었다. 영어 번역들에는 가정법보다는 직설법이 우세하다: NKJV, NRS, NASB, NIV 등은 직설법으로, NEB, REB 등은 가정법(“... let us continue at peace with God ...”)으로 번역되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다면, 로마서 5:1의 번역은 본문비평 과정을 통하여 원문을 구축하는 작업이 성경 번역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며, 그 해결책으로 성서해석 과정이 본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BS 4판의 편집자들과 이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주석가들은 직설법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지만 그 결론은 그리 견고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번역자들에게는 이 구절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일이 숙제로 남아 있다. 필자는 명령법의 일종인 권유법(가정법, ἔχωμεν)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3.1.2.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은 1-11장까지의 직설법 부분 혹은 교리 부분에 이어 나오는 바울 서신의 소위 명령법 부분 혹은 권면 부분의 시작이다. 로마서 12장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처음부터 다양한 명령법의 연속으로 구성되어서 이를 실감하게 한다. 로마서 12:1은 사도의 권유(παρακαλῶ) 형식을 띤 명령이고, 2절은 유명한 명령법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3-21절 이하는 부정사(3, 15절)와 분사들(9-13절)까지 동원된 다양한 명령법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로마서 12:2는 1절과 더불어 헌신을 강조하는 설교의 본문으로 널리 사용되에도 불구하고 명령법과 더불어 사용된 부정사 구문 때문에 한글 번역에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³⁹⁾

35) Stanley E. Porter, “The Argument of Romans 5: Can a Rhetorical Question Make a Difference?” *JBL* 110:4 (1991), 662-664.

36) 난외에는 ‘화평이 있고’라고 직설법으로 번역한다.

37) 『개역개정』에서는 이 난외의 내용이 없다.

38) 그러나 난외에는 ‘누릅시다’로 번역하고, 5:2에서도 난외에는 ‘자랑합시다’로 번역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마서 12:2의 다양한 번역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NT Rom 12:2 καὶ μὴ συσχηματίζεσθε τῷ αἰῶνι τούτῳ, ἀλλὰ μεταμορφοῦσθε τῇ ἀνακαινώσει τοῦ νοῦς εἰς τὸ δοκιμάζειν ὑμᾶς τί 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 τὸ ἀγαθὸν καὶ εὐάρεστον καὶ τέλειον.

NKJV Rom 12:2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ou may prove what *is* that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NRSV Rom 12:2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s, so that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NIV Rom 12:2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NEB Rom 12:2 Adapt yourselves no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present world, but let your minds be remade and your whole nature thus transformed. Then you will be able to discern the will of God, and to know what is good, acceptable, and perfect.

『개역개정』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번역』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공동개정』 로마 12:2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영어 번역들은 대체적으로 명령문을 가시적으로 잘 번역하였으나, 한글 성서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개역개정』은 쉽표도 없이 한 문장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목적이나 결과로 번역되어야 할 부정사 구문을 “분별하

39)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신이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원에라도 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1절) 2절의 명령대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은혜를 입으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은 분별되게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혹은 부정사 구문을 목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명령들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록 하라”로 번역하여 이 부분이 정규 명령으로 보인다. 『새번역』은 쉼표를 사용하여 명령법을 구분하였으나, 마지막에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이 명령처럼 보인다. 『공동개정』은 두 명령문을 부정사 구문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명령법 부분이 살아났다. 다음과 같이 로마서 12:2의 원문의 문장 흐름도를 그려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 행간에 필자의 번역을 실었다:

καὶ μὴ συσχηματίζεσθε τῷ αἰῶνι τούτῳ,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ἀλλὰ μεταμορφουσθε τῇ ἀνακαινώσει τοῦ νοῦς
 오히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εἰς τὸ δοκιμάζειν ὑμᾶς τί 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
 τὸ ἀγαθὸν
 καὶ εὐάρεστον
 καὶ τέλειον.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할 만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2:2의 첫 번째 명령문(μὴ συσχηματίζεσθε)은 소극적인 명령 혹은 금지이고 두 번째 명령문(μεταμορφουσθε)은 적극적인 명령 혹은 권면이다. 코이네 그리스어에서 이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한 말로 여겨졌으나, 보통 첫 번째 것은 외형적인 변화를 두 번째 것은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데 쓰였다. 두 명령형 모두 수동태이어서 성격과 행위를 빚어내는 힘이 있는 이 세대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로 하고, 또한 모두 현재형이어서 각 개인이 이러한 능력 구조를 저항하거나 받아들이는 책임이 있음도 암시한다.⁴⁰⁾ 영어 번역본들은 거의 한 가지로 “conform”과 “transform”을 사용하여 원어의 상이함을 반영하고 있고, 수동형으로 번역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이 한글 성서들도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로 구분하고 있으나, 수동형 표현은 언어의 특성상 용이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로마서 12:2의 번역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고려사항은 부정사 구문이다. 혼돈을 막기 위하여 부정사 구문과 명령법을 끊어서 번역함으로써 명령법도 살리고 부정사 구문도 살릴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영어 번역들은 대부분 이 부정사 구문을 결과로 번역하고 있다. 던(Dunn)도 그러하고,⁴¹⁾ 피츠마이어

40) James D. G. Dunn, *Romans 9-16*, WBC (Dallas: Word Books, 1988), 712-3.

41) *Ibid.*, 707.

(Fitzmyer)도 마찬가지이다.⁴²⁾ 하지만 『개역개정』의 번역은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십상이다. 『새번역』은 쉼표를 둠으로써, 그리고 『공동개정』은 명령법 문장과 부정사 구문을 독립된 문장으로 번역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 로마서 12:2는 명령법도 살리고 부정사 구문도 살려서 번역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안한 필자의 번역이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3.2. 고린도전서 7:21의 번역

고린도전서 7:21(δοῦλος ἐκλήθης, μή σοι μελέτω· ἀλλ' εἰ καὶ δύνασαι ἐλεύθερος γενέσθαι, μᾶλλον χρῆσαι.)은 두 개의 명령법 동사를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두 번째 명령법은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로 유명하다. 두 번째 명령법(χρῆσαι)은 동사 χράομαι(“이용하다, 최대한 활용하다”)의 2인칭 부정과거 중간태 명령법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명령법이 명령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 명령의 내용이 문법적으로나 문맥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주요한 영어와 한글 번역본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뉜다:

GNT 1Co 7:21 δοῦλος ἐκλήθης, μή σοι μελέτω· ἀλλ' εἰ καὶ δύνασαι ἐλεύθερος γενέσθαι, μᾶλλον χρῆσαι.

NIV 1Co 7:21 Were you a slave when you were called? Don't let it trouble you-- although if you can gain your freedom, do so.

NKJ 1Co 7:21 Were you called *while* a slave? Do not be concerned about it; but if you can be made free, rather use it.

NRSV 1Co 7:21 Were you a slave when called? Do not be concerned about it. Even if you can gain your freedom, make use of your present condition now more than ever.

『개역개정』 고전 7: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연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또는 “자유 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표준새번역(개)』 고전 7:21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공동개정』 고전 7:21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노예였다 하더라도 조금도 마음 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이

42) Joseph A. Fitzmyer, *Romans*, 637, 641.

용하십시오.

NEB는 각주에 “but even if a chance of liberty should come, choose rather to make good use of your servitude.”를 두고 있어서 『개역한글판』의 스타일과 비슷한 입장에서 서 있다.

이렇게 번역본들이 두 가지로 나뉘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문법과 문맥 이해에 기인한다.⁴³⁾ 첫 번째는 $\chi\rho\eta\sigma\alpha\iota$ 의 목적어를 “종의 상태”로 보는 번역인데,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choose rather to make good use of your servitude”)로 번역한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운다: 1) $\epsilon\acute{\iota}$ $\kappa\alpha\acute{\iota}$ 라는 어구는 종종 “비록 -할지라도”(even though)라고 해석된다(고후 7:8; 12:11); 2) $\mu\acute{\alpha}\lambda\lambda\omicron\nu$ 이라는 어휘는 “오히려”보다는 종종 반어적으로 “대신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3) 접속사 $\gamma\acute{\alpha}\rho$ 가 이끄는 다음 구절은 종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이유를 말한다;⁴⁴⁾ 4) 전체 문맥의 주안점이 현재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chi\rho\eta\sigma\alpha\iota$ 의 목적어를 “자유”로 보는 번역인데,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although if you can gain your freedom, do so.”)로 번역한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운다: 1) 합성어구인 $\epsilon\acute{\iota}$ $\kappa\alpha\acute{\iota}$ 의 정상적인 의미는 “비록 -일지라도”(even though)가 아니라 “진정 -하다면”(if indeed)이다(고전 4:7; 7:11, 28); 2) 생략법이 사용된 문장에서는 해당 문장에서 단어를 공급해 줘야지 다른 문장에서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된 단어는 “종”(δοῦλος)이 아니라 “자유”(ἐλεύθερος)이다; 3) $\mu\acute{\alpha}\lambda\lambda\omicron\nu$ 이라는 어휘는 강조의 뜻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 4) $\chi\rho\eta\sigma\alpha\iota$ 는 부정과 거 명령법으로 단회적인 행동을 암시하기 때문에 “종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로는 해석될 수 없고 또 이 동사는 소극적인 뜻보다는 적극적인 뜻으로 사용된다; 5) 반의 접속사($\acute{\alpha}\lambda\lambda\prime$)로 시작되는 구절에서 앞에 나온 내용(“종”)을 지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문법적 고려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역사적으로 해방된 노예가 그것을 거절한 예가 역사적으로 없다는 사실이다.⁴⁵⁾ 둘째로, 구조적으로 17-24절의 논의에서 21절 하반절은 예외에 속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18-19절의 유형에 기초한다면, 22-23절의 신학적인 진술은 21절

43)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315-8; Anthony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0), 553-559.

44) C. K. Barrett,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HNTC (New York: Harper & Row, 1968), 171.

45) Hans. Conzelmann, *1 Corinthian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75), 127.

의 내용일 수도 있는, 노예로 머물러 있으라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단 전체의 명령(“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한글 번역들은 『개역』의 난외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잘 파악하여 번역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경우에서 번역자들이 배우는 교훈은 문법-사전적 지식에 해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맥을 잘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사실에도 밝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3.3. 히브리서의 권유법(hortatory)

히브리서는 서신서라기보다는 설교문이다. 히브리서는 설교문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⁴⁶⁾ 그 중의 하나가 1인칭 복수 명령문이라고 볼 수 있는 권유법(hortatory)이다. 히브리서에는 열 군데 가까이에서 이 권유법이 사용되고 있다(히 4:1, 11, 14, 16; 6:1; 10:22-24; 12:1, 28; 13:13, 15).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유법뿐만 아니라 명령법도 여러 번 사용되었다(히 3:12-13; 10:32, 35; 12:3, 7, 12, 14, 25; 13: 1-3, 7, 9, 16-18, 24).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권유법과 명령법은 되도록이면 설교문의 특징을 살려 번역해야 한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판들은 이 권유법들을 거의 한결같이 “let us-”로 번역하고

46) 히브리서 저자도 자신의 글을 ‘권면의 말씀’(ὁ λόγος τῆς παρακλήσεως)이라고 하는데(히 13:22), 이 어휘를 행 13:15의 예(‘권면의 말씀’; λόγος παρακλήσεως)와 비교해보면 설교에 가까운 의미이다. 히브리서에는 글이 아니라 연설 혹은 설교임을 암시하는 수사학적 요소들이 아주 풍부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두운법(1:1), 수구반복(anaphora, 11장에서 열여덟 번이나 나오는 πίστει), 대조법(7:18-21; 10:11-12), 모운(10:26-27), 연결사 생략(11:33-34, 37), 교차대조법(2:8-9; 7:23-24; 10:38-39), 디아트리베 논쟁법(diatribе, 3:16-18), 생략법(12:25), 중언법(5:2), 전치법(2:9), 곡언법(4:15), 리듬(1:1, 6; 2:1, 8) 등이 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풍부한 어휘력(히브리서에 사용된 1,083개의 어휘 중에서 신약성서의 ‘하팍스 레고메나’[ἄπαξ λεγόμενα]는 169단어에 이르며, 그 중에는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여 조어진 어휘들도 많다), 권유법(4:1, 11, 14, 16; 6:1; 10:22-24; 12:1, 28; 13:13, 15)과 명령법(3:12-13; 10:32, 35; 12:3, 7, 12, 14, 25; 13: 1-3, 7, 9, 16-18, 24)을 적절히 안배하는 권면 능력, 다양한 직유법의 동원기술 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의 사용(2:5; 5:11; 6:9; 8:1; 9:5; 11:32), 칠십인 역의 사용과 석의 방법, 그리고 선포/교리해석-권면/경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교훈으로 마치는 것(13장) 등은 히브리서가 설교였음을 시사하는 요소들이다. 히브리서가 설교문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하는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보라: William Lane, *Hebrews 1-8*, WBC (Dallas: Word Books, 1991), lxix-xcviii; Harold W. Attridge,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13-21; Craig R. Koester, *Hebrews*. AB (New York: Doubleday, 2001), 80-96; J. R. Walters, “The Rhetorical Arrangement of Hebrews,” *The Asbury Theological Journal* 51 (1996), 59-70; R. T. France, “The Writer of Hebrews as a Biblical Expositor,” *Tyndale Bulletin* 47:2 (1996), 245-276.

있다. 한글 번역판들도 “-합시다” 혹은 “-하자” 혹은 “-지어다” 혹은 “-야겠습니다” 등으로 번역하여 이 권유법을 살리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서 4:1(Φοβηθῶμεν)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개역개정』, “여러분 …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새번역』) 등의 번역은 어느 정도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공동개정』은 이 권유법을 살리지 못하고 직설법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11(Σπουδάσωμεν)에서도 『공동개정』은 “-힘써야겠습니다”로 번역함으로써 권유법을 적절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명한 구절인 히브리서 4:14(κρατῶμεν), 16(προσερχώμεθα)에서 『개역개정』은 “굳게 잡을지어다 … 나아가갈 것이니라”로, 『공동개정』은 『새번역』과 함께 “굳게 지킵시다 … 나아가갑시다”로 번역함으로써 모두 권유법을 잘 살린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히브리서에서 또 다른 유명 구절인 히브리서 10:22-25에는 22, 23, 24절에서 각각 한 개씩의 권유법 동사가 사용되었고, 25절에는 분사들이 사용되었다:

GNT Heb 10:22-25

22 προσερχώμεθα μετὰ ἀληθινῆς καρδίας ἐν πληροφορίᾳ πίστεως ῥεραντισμένοι τὰς καρδίας ἀπὸ συνειδήσεως ποιηρᾶς καὶ λελουσμένοι τὸ σῶμα ὕδατι καθαρῷ·

23 κατέχωμεν τὴν ὁμολογίαν τῆς ἐλπίδος ἀκλινηῆ, πιστὸς γὰρ ὁ ἐπαγγειλάμενος,

24 καὶ κατανοῶμεν ἀλλήλους εἰς παροξυσμὸν ἀγάπης καὶ καλῶν ἔργων,

25 μὴ ἐγκαταλείποντες τὴν ἐπισυναγωγὴν ἑαυτῶν, καθὼς ἔθος τισίν, ἀλλὰ παρακαλοῦντες, καὶ τοσοῦτω μᾶλλον ὅσῳ βλέπετε ἐγγίζουσιν τὴν ἡμέραν.

『개역개정』 히 10:22-25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번역』 히 10:22-25

22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마음에도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23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24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25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공동개정』 히브 10:22-25

22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23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24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씩시다. 25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이 구절들을 번역함에 있어서 『개역개정』은 “나아가자(22절) … 굳게 잡고(23절) … 그리하자(25절)”라고 번역함으로써 24절의 권유법 “서로 돌아봅시다(καταϊνωμεν ἀλλήλους)”를 놓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동개정』이 “나아갑시다(22절) … 굳게 간직하고(23절) … 마음을 씩시다(25절)”라고 번역함으로써 25절에 따라 오는 분사들도 명령법으로 번역하고는 있지만, 이 구절들에서 권유법을 가장 잘 살린 번역은 “나아갑시다(22절) … 굳게 지킵시다(23절) … 격려합시다(24절) … 모입시다(25절).”로 번역한 『새번역』이다.

히브리서 10:22-25와 흡사한 구조가 히브리서 12:1-2에 나타나는데, 1절에서 분사(ἀποθέμενοι)와 권유법이 사용되고(τρέχωμεν) 2절에서는 분사가 사용되었으나(ἀφορώντες), 한글 번역본들은 2절의 분사까지도 권유법으로 번역하고 있다: “경주하며 … 바라보자”(『개역개정』); “달려갑시다 … 바라봅시다”(『새번역』); “달려갑시다 … 바라봅시다”(『공동개정』).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1절의 분사와 권유법을 “let us-”로 번역하지만, 2절의 분사는 그냥 분사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NIV만은 2절의 분사도 “let us-” 번역함으로써 1절과 2절의 분사 두 개를 모두 권유법으로 번역한다.

히브리서에는 이외에도 마지막 장 히브리서 13:13(ἔξερχώμεθα), 15(ἀναφέρωμεν)에서도 권유법이 사용되고 있다. 13절에서 『개역개정』은 “-나아가자”로 권유법 동사를 직접적으로 잘 번역했으나,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각각 “나가 … 나아가서 … 짊어집시다”와 “나아가서 … 함께 겪읍시다”로 번역함으로써 권유법 동사를 직접적으로 살리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5절에서는 세 번역 모두 권유법을 적절히 번역하였다: “-드리자”(『개역개정』); “-드립니다”(『새번역』, 『공동개정』).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히브리서는 설교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권유법은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4. 베드로전서 1:6의 번역

베드로전서 1:6(ἐν ᾧ ἀγαλλιᾷσθε, ὀλίγον ἄρτι εἰ δέον [ἐστίν] λυπηθέντες ἐν ποικίλοις πειρασμοῖς,)에는 직설법인가 명령법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동사가 번역자들을 기다린다. 이 구절에 나오는 동사 ἀγαλλιᾷσθε는 2인칭 복수 현재 중간 태 직설법이기도 하고 명령법이기도 하다.⁴⁷⁾ 영어 번역본 대부분은 이 동사를 직설법으로 번역하지만, 다음에서 보듯이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개역개정』과는 달리 명령법으로 번역하였다.

GNT 2Pe 1:6 ἐν ᾧ ἀγαλλιᾷσθε, ὀλίγον ἄρτι εἰ δέον [ἐστίν] λυπηθέντες ἐν ποικίλοις πειρασμοῖς,

『개역개정』 벰전 1: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새번역』 벰전 1:6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공동개정』 1베드 1:6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동사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 명령법, 단순한 현재 직설법, 미래적 현재 직설법 등이다. 이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미래적 현재 직설법으로 번역하는 것이나, 명령법으로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⁴⁸⁾ 그렇다면 우리 번역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번역자들은 종종, 문맥을 살피고 기지를 발휘하여, 교육받은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 베드로전서 1:6의 경우가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4. 나오는 말

우리는 이상에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몇 곳을 택하여 그리스어 신약의 명령법 번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여기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리면서 번역자들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로마서 5:1의 번역에서 보듯이 본문의 문제를

47) 살전 5:14-22에 열네 번이나 계속하여 나오는 명령법도 동일하게 2인칭 복수 직설법과 동일한 형태이다.

48) J. Ramsey Michaels, *1 Peter*, WBC (Waco: Word Books, 1988), 27-8. 여기서 우리는 마 5:12(χαίρετε καὶ ἀγαλλιᾷσθε)를 연상할 수 있고, 베드로도 벰전 4:13-14에서 이와 비슷한 어법을 쓰고도 있다.

심도 있게 먼저 고려해서 번역해야 한다. 여기에는 본문비평만 의지하지 말고 또 다른 해석학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고린도전서 7:21에서 살펴본 것같이, 성서 번역자들에게 사전적-문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신학적 지식이 함양될수록 더 합당한 번역을 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셋째, 위에서 예로 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와, 요한복음 5:6과 로마서 6:13과, 로마서 12:2에서 보았듯이 시상의 문제를, 대상언어로 어떻게 번역하여 살려낼지를 번역자들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주기도에서의 수동태 명령법에 대한 한글 번역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지상명령이나 로마서 12:2에서처럼, 명령형을 부정사 구문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번역한다면, 오해도 줄이고 명령법과 부정사 구문 둘 다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히브리서의 권유법의 예나 베드로전서 명령법 본문은 해당 성서의 책 전체의 성격 및 인접한 문맥과 조화를 이루도록 번역해야 한다.

<주요어> (Keyword)

명령법, 지상명령, 명령법 시상, 명령법의 태, 분사 명령법

imperative, the great commission, Actionsart of imperative, voice of imperative, participle used as imperative

<참고문헌>

- Aland, Barbara, et al., *The Greek New Testament*, 4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United Bible Societies, 1993.
- Aland, Barbara, et al.,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장동수, 『신약성서 헬라어 문법: 어형론과 문장론』, 서울: 요단, 1999.
- 브루스 M. 메츠거, 『신약그리스어본문주석』 제 2 판,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 Attridge, Harold W.,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 Barrett, C. K.,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HNTC, New York: Harper & Row, 1968.
- Black, Matthew, *An Aramaic Approach to the Gospels and Acts*, 3r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67.
- Beasley-Murray, George R., *Baptism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6.
- Betz, Hans Dieter, *The Sermon on the Mount*,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Blass, F.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Conzelmann, Hans., *1 Corinthian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75.
- Cranfield, C. E. B., *The Epistle to the Romans*, ICC, Edinburgh: T. & T. Clark, 1982(2).
- Crosby, Michael H., *House of Disciples: Church, Economics, and Justice in Matthew*, New York: Orbis Books, 1988.
- Dunn, James D. G., *Romans 1-8*, WBC, Dallas: Word Books, 1988.
- Dunn, James D. G., *Romans 9-16*, WBC, Dallas: Word Books, 1988.
- Edwards, Richard A., *Matthew's Narrative Portrait of Disciples: How the Text-Connotted Reader Is Informed*, Harrisburg: Trinity Press, 1997.
- Fee, Gordon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 Fitzmyer, Joseph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B, New York:

- Doubleday, 1970.
- Fitzmyer, Joseph A., *Romans*, AB, New York: Doubleday, 1992.
- France, R. T., "The Writer of Hebrews as a Biblical Expositor," *Tyndale Bulletin* 47:2 (1996), 245-276.
- Gundry, Robert H., *Matthew: A Commentary on His Handbook for a Mixed Church under Persecution*,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4.
- Hagner, Donald A., *Matthew 1-13*, WBC, Dallas: Word Books, 1993.
- Hagner, Donald A., *Matthew 14-28*, WBC, Dallas: Word Books, 1995.
- Hartman, Lars, "Into the Name of Jesus: A Suggestion concerning the Earliest Meaning of the Phrase," *New Testament Studies* 20 (1974), 432-440.
- Hartman, Lars, "ὄνομα,"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2,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ds., Grand Rapids: Eerdmans, 1990.
- Jeremias, Joachim, *The Lord's Pray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 Koester, Craig R., *Hebrews*, AB, New York: Doubleday, 2001.
- Lane, William, *Hebrews 1-8*, WBC, Dallas: Word Books, 1991.
- Lane, William, *Hebrews 9-13*, WBC, Dallas: Word Books, 1991.
- Luz, Ulrich, "The Disciples in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Stanton, Graham, eds., *The Interpretation of Matthew*,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98-128.
- Michaels, J. Ramsey, *1 Peter*, WBC, Waco: Word Books, 1988.
- Moo, Douglas,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 Murray, John, *The Epistle to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59, 1965(2).
- Nepper-Christensen, P., "μαθητής, μαθητεύω,"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ds.,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2, Grand Rapids: Eerdmans, 1990.
- Nigel Turner, *Syntax*, Edinburgh: T. & T. Clark, 1963.
- Porter, Stanley 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JSOT Press, 1994.
- Porter, Stanley E., "The Argument of Romans 5: Can a Rhetorical Question Make a Difference?" *JBL* 110:4 (1991), 655-677.
-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 Schieber, Hans, "The Conclusion of Matthew's Gospel," *Theology Digest* 27

(1979), 155-158.

Thiselton, Anthony C.,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0.

Verkuyl, Johannes, 김명혁 편역,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83, 169-208.

Walters, J. R., "The Rhetorical Arrangement of Hebrews." *The Asbury Theological Journal* 51 (1996), 59-70.

Wilkins, Michael J., *Discipleship in the Ancient World and Matthew's Gospel*, 2nd 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Zerwick, Maximilian, *Biblical Greek*, Rome: Scripta Pontificii Instituti Biblici, 1963.

<Abstract>

Suggestions for Korean Translation of Greek Imperatives

Prof. Dong-Soo Chang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some selected passages containing imperatives from Greek New Testament and to suggest alternative Korean translations for a more proper translation. The paper starts with an overview on the imperatives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the imperative as well as many kinds of alternatives such as future indicative, subjunctive, infinitive, participle, and optative were used. All these kinds of imperatives have various functions in the NT such as command, prohibition, prayer, appeal, permission, concession, and condition.

The Lord's Prayer, the great commission, Romans 5:1 and 12:2, 1Corinthians 7:21, 1Peter 1:6, and the hortatory sentences of the Hebrews were studied in detail. This paper consulted on each passage with several English translations as well as three main Korean translations of the Bible. It also focused on some differences in parallel passages of Matthew and Luke, the textual study on Romans 5:1, and on the infinitive structure contained in Matthew 28:19-20 and Romans 12:2.

This paper has some useful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translators for Korean version on these imperative passages. Some useful suggestions are as follows: the implied subject of imperatives in the Lord's Prayer should be God; it would be better to translate Matthew 28:19-20 and Romans 12:2 into two sentences; Romans 5:1 and several passages from the Hebrews should be translated into hortation; it will be better to translate 1Peter 1:6 in the imperative instead of the indicative; the object of the last imperative in 1Corinthian 7:21 may not be slavery but freedom.